

#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각국의 대응

일본 우정성은 지난 2000년 8월 31일, 「방송분야에서의 청소년과 미디어 이용능력에 관한 조사연구회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제2장과 제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였다.

## I. 외국의 미디어 이용능력에 관한 대처

### 1. 개 요

#### 가. 구미의 미디어 교육 계보

구미의 미디어 이용능력 관련 계보는 1920년대의 영화 감상지도를 시작으로 이후 1960년대 TV를 포함한 영상 미디어, 1970년대에는 신문을 포함한 미디어 교육으로 발전하였으며 여기에는 예술교육, 언어교육, 매스컴교육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1962년에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영화·TV교육에 관한 국제집회」에서는 ‘영상교육(Screen Education)’을 국제용어로 채용하여 ‘...미디어에 대한 어른과 청소년 양방이 비판적이고 감상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교육이다’라고 정의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디어 교육을 학교교육 시정 커리큘럼으로 정하는 경향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걸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나. 정부기관

선진국의 학교교육 커리큘럼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미디어교육이 도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과목에 대해서는 언어교육관계 과목과 사회, 예술 등을 단독과목으로 가르치는 경우, 복수 과목으로 하는 경우, 미디어 학습이라는 독립과목으로 가르치는 경우, 또는 이것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단, 커리큘럼 상에는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더라도 교재나 교사의 역량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잘 운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교육담당성 이외에서도 캐나다 문화성(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성(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 DCMS), 독일의 방송

청(미디어청) 등의 방송담당성이 미디어교육에 대처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 다. NPO, 방송사업자

미디어 이용능력 교육이 학교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국가에서도 NPO(비영리기관)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활동에는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 예도 있다. NPO의 활동에 의하여 미디어교육이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된 사례도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미디어 이용능력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방송을 실시하거나 교재 작성을 실시하기도 한다. 각 국의 NPO는 미디어 이용능력에 관한 근본적인 활동을 실시하면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각 국의 상황을 서술한다.

## 2. 각 국의 대처

### 가. 영 국

영국에서는 프레스나 영화비평으로 시작되는 오랜 미디어교육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미디어 교육으로서 폭넓은 명시적 커리큘럼으로 발전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미디어교육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공통 커리큘럼이 도입된 것은 1989년이다. 미디어 작품 독해나 분석 등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교육은 초·중등교육을 통하여 주로 모국어 수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중등 교육종료 시의 시험과목에 선택과목으로 ‘미디어연구(Media Studies)’ 등이 포함되어 있다.

BBC(영국방송협회), BFI(영국영화기관), OU(공개대학) 등도 미디어교육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교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BBC, 채널4 등의 방송사업자도 미디어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있다. 또한, DCMS(문화·미디어·스포츠성)는 관계관청의 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로서의 미디어 교육에 관한 총괄적인 방침을 추진 중이다.

### 나. 독 일

독일에서는 각 주(州)간의 교육정책·제도 차이를 조정하여 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교육·문화담당 각주 대신에 의한 ‘상설교육·문화담당 대신회의’가 책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디어 교육의 대처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각 주의 방송청은 미디어 교육에 관한 연구가 임무 중 하나로 시민에 의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나 미디어 교육 추진단체에의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공공방송인 ZDF는 미디어 이용능력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NPO인 JFF는 방송청의 미디어 교육에 관한 위탁연구를 시작으로 기관지 출판, 각종 세미

나 개최 등, 미디어 이용능력 보급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초·중등교육의 교육과정에 미디어 교육에 관한 언급이 있으며 예를 들어 초등 교육의 '민주주의에 관한 의논'이라는 수업에서는 미디어 이용능력에 관한 테마를 필수 과목으로 선택하고 있다. 또한, 공적 기관인 국립 교육자료센터는 교사용 미디어 교육용 교재를 제작·출판하고 있다. 또한, 공공방송인 라산키엠은 국립 교육자료센터와 협력하여 작성한 미디어 이용능력에 관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방영하고 있으며 NPO인 CLEMI는 미디어 이용능력의 교재제작, 각종 세미나 개최 등 보급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라. 기타 국가

핀란드의 미디어 교육은 1970년대 초에는 초등교육 커리큘럼(핀란드어)에 도입되어 1990년대에는 공통 커리큘럼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초·중등교육의 핀란드어, 예술, 역사에서 교육하고 있다.

스웨덴의 미디어 교육은 1980년부터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며 현재, 초·중등교육의 스웨덴어, 예술, 사회·역사에서 교육하고 있다. 또한, 지방 자치체 자금으로 오디오 비주얼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영화, 미디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NPO인 TIS는 교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미디어 교육은 1960년대에 커리큘럼으로 도입, 1974년에는 필수, 초·중등교육에서 전국적으로 교육하게 되었다.

덴마크의 미디어 교육은 1970년대에는 커리큘럼(덴마크어), 현재에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의무화되어 있다. 기타, 스위스, 호주 등에서도 학교 교육에 미디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시민참가형 프로그램제작을 실시하는 방송사업자도 있다.

#### 마.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1999년 7월에 발표된 「TV방송에 관한 Parental Control 연구에 관한 유럽위원회 커뮤니케이션」에서 '미디어에 관한 이용능력 교육이나 TV시청에 대한 비판적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의 국경을 초월한 TV지령 재점검에 반영할 예정이다.

### 3. 북미의 대처

#### 가.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각 주의 교육담당대신의 회합인 '교육대신심의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작성에 대해 각 주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디어 이용능력 교육에 대해서도 대처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교육성에서는 1987년 커리큘럼 가이드라인에서 영어의 일부로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캐나다 최초의 필수과목인 '영어'에서 미디어 이용능력교육이 실시되었다. 이후 1999년 가을부터 모든 주에서 의무교육화 되었다. 또한, 캐나다 문부성은 '연방정부 미디어 폭력전략'(1998년)이라는 정부 성명에서 미디어 교육에 관한 방침을 제시, 장기 목표로 자녀, 부모 등 모든 시청자를 위한 미디어 교육을 추진할 것으로 정하였으며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연방 수준에서 CRTC(캐나다 라디오·TV 전기통신위원회)를 포함한 관계자가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CRTC는 미디어에 의한 폭력에 대처하는 어프로치로는 미디어 이용능력도 중요하며 커뮤니티 그룹에 의한 CATV 프로그램제작 지원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나. 미 국

1989년의 교육 Summit을 계기로 정부는 학교 교육의 전국적인 수준향상을 위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는 교육스탠다드<sup>1)</sup>에 기본을 둔 각 주 독자 커리큘럼작성, 교육 실시가 장려되고 있으며 연방교육성(Department of Education)부터 관계 기관까지의 보조금도 교부되고 있다. 또한, 연방교육성은 미디어 이용능력의 보급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NPO에도 조성금 교부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의 커리큘럼에 미디어작품 해석이나 제작 등, 미디어 이용능력 교육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도 교사용 미디어 이용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전미 방송사업자협회(NAB)에서도 각종 미디어 이용능력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전미 CATV협회 등의 방송관련 단체에서도 미디어 이용능력에 관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4. 호 주

호주에 미디어 교육이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이며 1994년에 모든 주에 도입된 공통 커리큘

1) 영어, 수학, 과학 등의 담당교사 별로 구성된 조직을 시작으로 NPO가 작성한 것까지 교육스탠다드는 다수 존재한다.

럼에 Media Studies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모든 주의 공통 필수과목이 되었다. 공통 커리큘럼에서는 현재, 영어, 예술, 기술의 3과목에서 '미디어 교육'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술에서는 교육의 일환으로 미디어 작품 제작이나 미디어 작품 비판적 분석 등이 포함 되어 있다. 각 주는 이 공통 커리큘럼에 기초한 독자 커리큘럼에 따라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교사의 역량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호주방송청(ABA)은 미디어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정보지 발행과 미디어 교육 보급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방송인 ABC 및 SBS는 미디어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또한, 호주 미디어 교사회(ATOM)와 같이 각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NPO는 미디어 교육에 관한 교재 작성, 교사를 위한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방송관계 기관과의 제휴도 활발하다.

## 5. 아시아

홍콩, 필리핀 등에서는 정부 수준의 대처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 및 필리핀에서는 학교 커리큘럼에 미디어 교육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연구기관인 AMIC가 미디어 교육에 관한 연구 이외에 각종 교재 제작·출판을 실시하고 있다.

## 6. 국제 기관

### 가. 유네스코

유네스코에서는 오래 전부터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미디어 교육 충실에 계속적인 대처를 실시해 왔다. 1977년에는 「교육에서의 Media Studies」 보고서, 다음 해에는 중학교 대상의 「매스미디어 교육의 일반적 커리큘럼 모델」을 간행하는 등 1982년 1월에는 유네스코 주최로 열린 「매스미디어 이용시의 공공교육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미디어 교육에 관한 그린벨트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밖에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나. 기 타

1995년과 1998년의 「TV와 자녀」 세계 Summit, 2000년 5월의 「Summit 2000: 청소년과 미디어」 등 미디어 이용능력 또는 청소년과 미디어에 관한 각종 국제회의는 민간단체가 주최로 개최되고 있으며 여기에 유네스코, 유니세프 등의 국연을 포함한 정부관계자가 참가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세계 각 국의 관계기관 등의 연구성과 발표나 정보교환의 장이 되고 있다.

## II. 일본의 미디어 이용능력에 대한 대처

일본에서는 미디어 이용능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나 각 종 미디어 의식화, 평가, 판단능력 육성을 포함하여 미디어 이용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대처에 대해서는 일부 교사, NPO, 연구기관이나 미디어기관 등에서 자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도이며 제도적·조직적 대처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 1. 정부에 의한 대처

#### 가. 정 부

정부에 의한 대처로는 문부성 생애학습심의회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자녀에게 있어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기회의 충실은 잘못된 정보나 불필요한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꼭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스스로 정보를 적절하게 발신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답신하는 등 총무청 청소년 문제심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심의회 답신에서 '정보이용 능력'이나 '미디어 이용능력'에 대하여 거론하면서 고도정보통신사회에서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보를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정보화에 대한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교육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정비, 인터넷 접속, 교육정보의 통신네트워크 정비 등 주로 컴퓨터분야의 대처는 많지만 방송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대처해야 할 과제나 그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단계에 멈춰있다.

#### 나. 지방자치체

지방자치체에서는 최근, 시민용 미디어 이용능력 강좌를 개강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강좌에서는 '비디오강좌', '컴퓨터강좌' 등에서 취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령자와 미디어', '청소년과 미디어' 등의 현대적 과제와 연관지어 미디어 이용능력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 2. 교육현장에서의 대처

#### 가. 학습 지도요령

학교교육에서는 각 교과나 '종합적인 학습시간<sup>2)</sup>'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

2)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초·중학교에서는 2002년부터 전면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2003년 신입생부터 단계적 실시)에 의하여 신설된 국제이해, 정보, 환경, 복지·건강 등 지금까지의 과목을 초

하는 것 이외에 중학교의 ‘기술·가정’이나 2003년부터 새롭게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과목 ‘정보’를 통하여 ‘정보이용능력’의 각 학교단계를 통한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보’에 관한 교과나 각 교과에서의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교육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나. 방송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사 등에 의한 자주적 대처

방송교육 방향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방송을 이용한 학습이나 교육’과 둘째, ‘방송미디어에 대한 학습이나 교육’이다. ‘방송을 이용한 학습이나 교육’은 1920년대부터 영화 교육에서 출발한다. 이후 1950년에 창설된 전국 방송교육연구회연맹은 학교방송프로그램을 학습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송교육 추진을 목적으로 수업실전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방송프로그램과 함께 개설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학교방송프로그램 시청과의 복합이용에 의한 쌍방향성이 있는 학습활동과 교류학습의 대처가 시작되었으며 방송과 통신의 병합이용에 의한 방송교육에 착수하였다. 또한, 일본방송협회 등과 공동으로 전국 중학교 방송 콘테스트, 전국 고등학교 방송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주체적인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방송미디어에 대한 학습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실전 사례는 풍부하지 않지만 방송미디어에 관한 ‘비판적 시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1947년부터 성성 학원 초등학교가 ‘영화 시간’(1975년부터 ‘영상시간’)을 설정하여 표현지도, 감각지도, 기술 지도를 실시하였다. 이 밖에 1970년대 후반부터 카나자와대학 교육부와 교사에 의한 ‘카나자와시 초등학교 방송교육연구회’나 동경공업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그룹이 영상 학력 규정이나 미디어 이용능력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에서는 컴퓨터 이용능력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미디어 교육의 문맥에서 제창된 ‘정보교육’이라는 단어도 컴퓨터 이용능력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례 이외에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일본어나 사회, 도덕, ‘종합적인 학습시간’ 등의 수업에서 방송프로그램이나 신문을 수업에 활용하는 등 미디어 이용능력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나 방송부 등의 활동과 문화축제 등의 행사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

월한 학습이 가능한 시간. 각 학교의 창의성을 살린 수업에 의하여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이상부터 주 3시간 정도, 중학교에서는 주 2~4시간 정도, 고등학교에서는 졸업까지 3~6단위 정도가 배당된다.

### 3. 매스미디어에 의한 대처

#### 가.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는 미디어 시청자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연구하고 있으며 자기검증프로그램 등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움직임이나 시청자 등의 비디오 작품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과 같은 시민제작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초등학교용 미디어 이용능력 프로그램이나 캐나다 등의 선진 사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제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방송관련 활동으로는 초·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이나 모의 뉴스 제작 체험이 가능한 장소나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TV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구조에 관한 시청자 의견에 대한 답변을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다.

#### 나. 종업원 조합

일본방송노동조합에서는 1995년의 활동방침에서 미디어 이용능력의 중요성과 대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폭넓은 미디어 관계자, 시민에게도 참고가 되는 미디어 이용능력 관계문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미디어 이용능력 연구원 등을 초빙한 학습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 왔다. 2000년 활동방침에서는 미디어 이용능력 이해를 심화시키는 대처와 함께 지역사회의 필요 파악이나 외부와의 정보교환 추진, 지역 별 구체적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다. 신 문

신문을 교재로 공부하는 학습운동인 NIE(Newspaper in Education)의 대처로 일본신문협회는 외국 사례를 참고로 하여 1988년에 NIE위원회를 설립하였다. 1998년 4월, NIE사업은 일본신문교육문화재단으로 이관하여 NIE활동 보급을 위해 NIE 실천학교에 신문 구독료를 보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4. 기타 민간단체에 의한 대처

#### 가.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FCT시민의 미디어 포럼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FCT시민의 미디어 포럼은 1977년 창설 이래 미디어 이용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와 실천을 계속해 왔으며 AML은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의 미디어 이용능력 관련단체와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FCT에서는 회원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분석이나 해외문헌 번역, 지방자치체와의 협력에 의한 미디어 이용능력 강좌 개설, 미디어 이용능력 교재 개발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북미의 대처상황을 일본에 소개하는 등 TV프로그램



의 현실적 문제 대처 활동으로는 FCT의 시민단체가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나. 민중 미디어 연합회

민중 미디어 연합회에서는 뉴스레터 발행, 문류 집회 개최 등을 통하여 참가자의 자주성에 의한 비디오촬영·편집 노하우, 컴퓨터·커뮤니케이션의 구체적 사례 등의 정보제공·교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다. 방송인회

방송계OB를 중심으로 한 ‘방송인회’(1997년 발족)가 시민과의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 라. 수업 만들기 네트워크

현역 교사를 중심으로 한 ‘수업 만들기 네트워크’에서는 미디어 활용 능력 수업의 실전 사례에 관한 정보교환 등 실천적 대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잡지나 메일잡지 등을 통하여 정보교환 이외에 2000년 「미디어 이용능력 교육연구회」를 설립하여 미디어 관계자와 교육관계자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마. 사단법인 일본 PTA전국협의회

사단법인 일본 PTA전국협의회에서는 1998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TV프로그램의 전국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제작이 개선되도록 방송사업자나 프로그램 제공기업 등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미디어 이용능력 프로그램을 전국 보호자에게 소개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호자의 미디어 이용능력에 대한 이해 촉진에 대처하고 있다.